

취향을 파고 삽니다

‘디깅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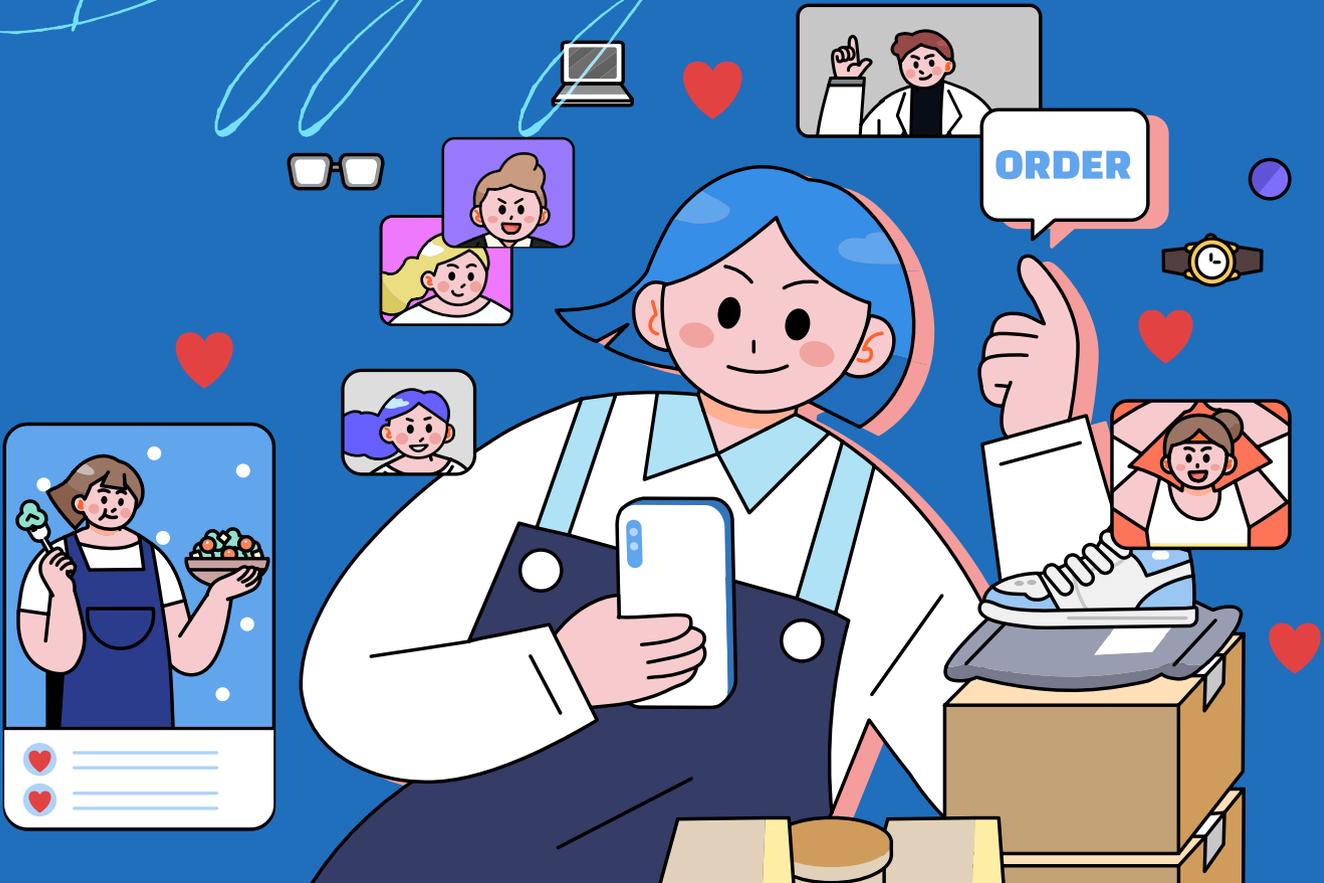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줄을 서고 망설임 없이 비용을 지불한다. 바로 ‘디깅 소비’를 일컫는 이 현상은 현대의 소비 트렌드에서 주요 현상이 되고 있다.

글 편집실

네가 좋아하는 것은 뭐니?

‘디깅 소비’는 ‘파다’를 뜻하는 영어단어 ‘dig’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정 품목이나 영역에 파고드는 행위가 소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취향을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신조어다. 이 디깅 소비는 특히 MZ세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혹은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 MZ세대들의 소비 성향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 취향이 소비로 연결되는 것으로 재미 있는 것은 이 ‘디깅’이 한 가지 분야나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igging



디깅 소비를 하는 가장 간단한 예로 신발 수집을 취미로 하는 마니아들이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거나 당첨받기 위해 낄씨와 상관없이 몇 날 며칠 매장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명 에쏘바, 즉 에스프레소바나 베이글 전문점 등을 생각하면 쉽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커피 입맛을 점령해 왔던 아메리카노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이탈리아식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취향껏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가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빵 중 한 종류인 베이글만을 취급하는 전문점 앞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풍경들이 생겨났다. 디깅 소비는 이렇듯 우리의 취향을 반영하는데, 단순히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의 소비가 아니라, 나만의 남다른 취향을 발견하고 그 취향을 세분화해 새로운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취향이나 취미 생활과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지갑을 열라

디깅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소비 품목이 보다 세분화 되는 것과 함께 또 한가지 두드러지는 소비 현상은 구독 서비스와 중고 거래의 증가다. 예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OTT나 못난이 채소 같은 것이 한 예로, 결국 내가 좋아하는 품목이나 분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소비, 그것도 정기적인 소비로 이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OTT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특정 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구독(전통주 구독)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라디오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망라해 들려주는 팟캐스트를 구독해 듣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이 디깅 소비는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중고 거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곳으로 바뀐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것, 취향의 것을 찾기 위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기 위해 첫 발매날 매장에 줄서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몇 날 며칠을 검색하고 또 검색해 구매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는 100년 된 앤티크 본차이나 세트 구하기 위해 해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찾아서 한 달을 기다려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해 '덕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이 되었든, 중고가 되었든 내 취향이나 취미에 관련해서는 지갑을 연다. 덕분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취미나 덕질과 관련된 카테고리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운동화를 비롯한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의 리세일 시장 역시 사이즈가 커졌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취향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기 식'으로 소비해 버리는 문화가 되어 버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문화를 통해 대중적이고 획일화된 소비 문화에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트렌드로 치부하고 휩쓸리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깊게 파보는 것을 온전히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